

'92년도 하반기 사료산업 전망

홍 순 찬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1. 사료산업은 과연 성장산업인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국민 소득증대에 따른 육류소비의 증가로 인해 1차산업중 가장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특히 사료산업의 경우는 축산업의 기초산업으로써 축산업성장과 그 성장의 궤를 같이 하면서 '8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물량성장이라는 호경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들어지면서 축산물의 수입개방과 함께 정부의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향후 축산업 및 사료산업이 성장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의 배경을 접어놓고라도 배합사료 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것 이라는게 공통된 시각이다. 이같은 저성장의 예측을 가능케하는 것은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국제 사료곡물가격, 원료구매에 따르는 환차손의 누증, 국내·외의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대별되는 배합사료 원가상승요인을 근원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생산성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배합사료산업은 전술한 외부적 어려움 뿐만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몇가지 내부적요인들로 인하여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 및 사료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급진전으로 축산물이 무차

별 수입되고 있을 뿐아니라 배합사료까지 이미 완전 수입자유화됨에 따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의 차별화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일부 배합사료원료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원료의 경제적 선택사용은 물론 제품의 차별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산업은 축산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축산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현저한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는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주어 축산물의 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같은 부류의 곡종간에도 차등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상호대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생산주체에 따라 차등부과함과, 이를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편입사용함에 따른 비경제적 요인을 차제하고라도 어느나라에서도 시행치 않는 높은 세율로서 우리나라 축산물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의 가장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배합사료 생산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배합사료산업 저성장 전망의 구체적 예로는 크게 축산물의 수입 개방문제로서 '97년까지의 개방계획이 이미 예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환경문제로서는 축산폐수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아울러 정부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사료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허가제인 배합사료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양축농가의 자가배합사료 생산증가로 대별된다.

이와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89년 배합사료생산량이 10,403천톤으로 천만톤을 넘어선 이래 '90년 들어서는 10,426천톤 생산으로 전년대비 0.2%의 양적성장을 보여 일견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전년의 저성장과는 달리 '91년도에 들어서는 전년대비 10.1%가 늘어난 11,483천톤의 배합사료가 생산되어 그간의 심리적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기는 하였으나, 이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90년 하반기 이후 '91 초중 국제곡물가격의 안정으로 인한 국내배합사료가격의 안정과 '89년 이후 '90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극히 침체해 있던 국내 축산·사료산업의 일시적 반동현상 또는 부작용해소 자원으로 인식될 뿐 근본적으로는 고율성장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도 이같은 양적 성장은 계속되어 한국사료협회가 잠정집계한 '92.7월말"까지의 배합사료생산동향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7,154천톤으로 전년도의 성장세를 계속 시현하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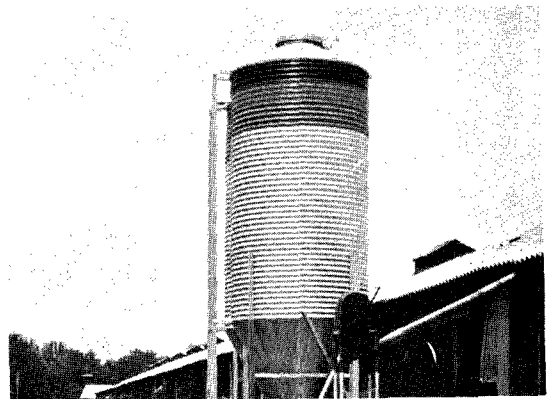


표1. 배합사료 생산동향

단위 : 톤, %

구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타		계	
	양계용	%	양돈용	%	낙농용	%	비육용	%	기타	%	계	%
81	1,842,072	52.8	761,204	21.8	470,831	13.5	414,699	11.9	1,650	-	3,490,456	100
82	1,979,841	44.8	1,150,528	26.0	592,346	13.4	692,739	15.7	4,347	0.1	4,419,801	100
83	2,245,621	38.4	2,013,007	34.4	709,936	12.1	870,595	14.9	12,427	0.2	5,851,586	100
84	2,064,866	34.5	1,987,411	33.2	852,589	14.3	1,072,394	17.9	7,699	0.1	5,984,959	100
85	2,309,726	35.8	1,923,298	29.8	994,282	15.4	1,209,042	18.7	14,330	0.2	6,451,072	100
86	2,639,176	34.4	2,178,297	28.4	1,208,477	15.7	1,624,251	21.2	25,040	0.3	7,675,241	100
87	2,933,024	32.5	2,953,297	32.7	1,404,234	15.6	1,673,467	18.6	54,207	0.6	9,018,229	100
88	2,947,385	30.2	3,603,712	36.9	1,608,423	16.5	1,511,624	15.5	96,026	0.9	9,767,170	100
89	2,922,828	28.1	4,071,563	39.2	1,718,739	16.5	1,561,337	15.0	128,941	1.2	10,403,408	100
90	3,274,258	31.4	3,550,704	34.0	1,789,611	17.2	1,666,783	16.0	144,363	1.4	10,425,719	100
91 (1-7)	2,151,267	33.3	2,054,853	31.8	1,062,155	16.4	1,079,589	16.7	109,137	1.7	6,457,001	100
91	3,601,141	31.4	3,889,245	33.9	1,864,686	16.2	1,917,658	16.7	210,447	1.8	11,483,177	100
92 (1-7)	2,135,365	29.8	2,410,957	33.7	1,115,306	15.6	1,305,548	18.2	186,827	2.6	7,154,003	100
92 (추정)	3,786,666	29.8	4,282,236	33.7	1,982,282	15.6	2,312,662	18.2	343,087	2.6	12,706,933	100

를 축종별로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가 2,135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반면 양돈용 배합사료 2,411천톤, 비육용 배합사료 1,30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7.3%, 20.9% 증가하여 전체 배합사료 생산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낙농용 배합사료 역시 1,115천톤으로 5%의 성장을 보였으며, 개사료를 포함한 기타사료가 187천톤 생산되어 전년동기대비 71.2%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92년초 생산주체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배합사료가격이 3~5% 인상

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상반기중 배합사료 생산이 증가한데에는 '91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양돈경기의 호황과 함께, 제2의 한우과동 우려로까지 예견되던 한우경기의 호조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축산관측결과 '92년말 가축사육동향전망을 보면 한(육)우가 1,950천두로 전년말대비 8.9% 증가하고, 젓소가 495천두로 전년말대비 역시 0.8% 증가하며, 돼지의 경우도 5,390천두로 전년말대비 6.5% 증가, 산란계가 44,400천수로 전년말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표2. 가축사육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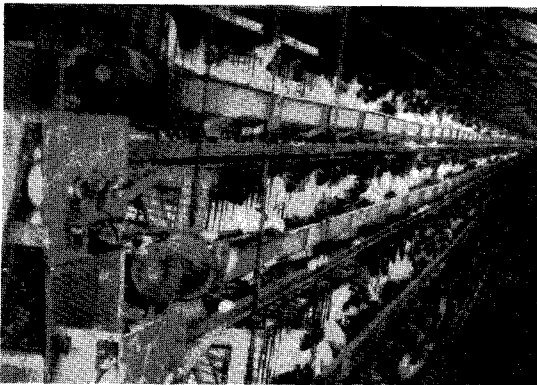
단위 : 천두 · 수

구분	91.3(A)	91.12(B)	92. 3(C)	92. 6	92. 9	92.12(D)	증 △ 감 (%)		
							C/A	C/B	D/B
한(육)우	1,610	1,773	1,790	1,870	1,960	1,950	11.2	9.6	8.9
젓 소	504	496	491	491	493	495	△2.6	△1.0	0.8
돼 지	4,487	5,046	5,062	5,110	5,130	5,390	12.8	0.3	6.5
산 란 계	43,043	42,209	41,802	43,100	43,800	44,400	△2.9	△0.9	6.2
육 계	24,489	27,300	27,038	-	-	-	10.4	△0.9	-

표3. 92/93년도 곡종별 수급상황

단위 : 백만톤

구 분			공 급				수 요			기말재고
			기초재고	생 산	수 입	계	국내소비	수 출	계	
옥수수	세계	7월	77.0	510.3	62.5	649.8	496.8	63.9	560.7	90.5
		6월	80.2	512.9	62.5	655.7	499.1	64.0	563.1	94.0
	미국	7월	27.2	214.6	-	242.1	164.2	39.4	203.6	38.5
		6월	28.5	217.8	-	246.5	164.7	39.4	204.1	42.4
소맥	세계	7월	131.1	543.8	113.5	788.4	546.1	117.0	663.1	128.7
		6월	130.2	547.8	113.1	791.1	549.2	116.8	666.0	128.9
	미국	7월	12.8	60.7	-	74.7	28.5	32.0	60.5	14.2
		6월	11.5	59.5	-	72.1	28.5	32.0	60.5	11.6
대두박	세계	7월	3.31	71.85	26.66	101.82	72.15	26.77	98.92	2.90
		6월	-	-	-	-	-	-	-	-
	미국	7월	0.3	29.3	-	29.6	23.2	6.1	29.3	0.3
		6월	0.3	29.3	-	29.6	23.2	6.1	29.3	0.3



망 및 전년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비율 그리고 최근 3개년간의 생산지수를 토대로해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을 추정한 결과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년도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당초 수급 계획상의 12,485천톤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3. 배합사료가격 및 국제사료곡물 수급동향

또한 생산추세방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최근 3개년간의 월별생산추이로 볼 때 7월 말까지의 생산누계비율이 56.3%이며, 금년 7월말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잠정치, 7,154,003톤)을 기초로 하여 추정하면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12,707천톤(7,154,003톤 ÷ 56.3)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관측결과 추정된 금년도 가축사육 전

현재의 배합사료 가격은 '88년의 세계적 인 한발의 여파로 인한 한차례 가격인상 이후 '89년말 국제 곡물 가격의 앙등, 원료수입에 따른 환차손의 누증 그리고 원료 및 제품의 물류비용상승으로 몇몇 제조업체에서 2% 내외의 인상을 하였으나 물가당국과 양축농가의 심한 반발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금년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면서 위에서 열거한 3

가지 악재가 계속 누적되어 제조주체에 따라 3~5%의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있었다.

세계사료곡물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92/93년의 옥수수수급은 전년대비 식부면적 증가와 정상적인 기후가 지속되리란 예상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이 전망되며, 소맥의 경우는 91/92년 보다는 다소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구소련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므로 가격역시 91/92년 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대두박 수급상황은 생산이 늘어나는 반면 세계소비량 및 교역량증가가 예상되므로 91/92년도에 비해 다소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면실박 수급 역시 공급량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소비 및 교역량이 증가될 전망이어서 대두박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준보다 다소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때 92/93년도 세계 곡류 수급상황은 향후 주요생산국들의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는한 지난해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박류사정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수급의 불안정이 예상된다.

국제사료곡물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국산 옥수수의 시세는 7월 초순부터 정상 강우와 어느정도 기온이 정상으로 회복됨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생산량보다 다소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초까지 옥수수의 대체원료로서 배합사료 가격안정에 기여해온 소맥의 경우

는 7월초 이후 오히려 꺾인 상태에서 가격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곡종별 수급동향을 보면 7월현재 금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예상량은 510.3백만톤으로 전망되어 전년(483.5백만톤)에 비해 5.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달의 512.9백만톤에 비해 260만톤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92/93년 옥수수생산은 214.6백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189.9백만톤)대비 13.0% 증가, 지난달에 비해서는 320만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교역량에 있어서는 금년도 세계수출량은 63.9백만톤으로 예상되어 지난해(66.1백만톤)보다는 3.3%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39.4백만톤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의 경우는 91/92년에 비해 생산증가 및 교역량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77.0백만톤) 17.5% 증가한 90.5백만톤으로 예상되며 그중 미국의 재고량은 38.5백만톤으로 전년대비(27.2백만톤) 41.5%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중 세계옥수수 수급은 주요생산국들의 생산증가와 기말재고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세계의 소맥생산예상량은 543.8백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수준(541.3백만톤)을 상회하고 있고 지난달 예상치 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량에 있어서는 117.0백만톤으로 지난해의 119.3백만톤보다 230만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며 이는 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

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말재고의 경우는 금년 세계재고량이 128.7백만톤으로 예상되어, 생산증가와 교역량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131.1백만톤) 1.8% 줄어든 것은 91/92년의 이월재고가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년도 세계소맥 생산예상량은 90/91년의 대풍작이던 589.0백만톤보다 7.7%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생산량으로서 구소련의 수입량 감소가 예상되고 옥수수 풍작이 전망되므로 91/91년 보다는 가격하락이 기대된다.

한편 미국의 금년도 수수생산량은 18.5백만톤으로 예상되어 지난해 보다 380만톤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6월 예상치 보다는 70만톤 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수출량의 경우는 660만톤으로 지난해 보다 40만톤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소비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말재고 수준은 330만톤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90만톤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92/93년 수급상황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92/93년 세계대두박 생산예상량은 71.9만톤으로 이는 지난해(71.4백만톤)보다 다소 감소된 것이며, 이중 미국의 대두박 생산예상량은 29.3백만톤으로 전년도 및 전월예상량과 변동이 없다. 한편 구소련의 생산이 124만톤으로 전년대비 11만톤 증가하고 남미생산량은 1,996만톤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의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수준과 유사한 26.8백만톤으로

전망되었고, 이중 미국의 교역량은 610만톤으로 전년보다 20만톤 감소한 반면 브라질 교역량이 785만톤으로 전년보다 35만톤 증가하였고, 알제틴은 565만톤으로 전년대비 45만톤 감소,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160만톤의 교역량이 예상되었으며, 세계재고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년도 331만톤에서 다소 줄어든 290만톤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92/93년의 세계대두박 생산은 지난해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소비 및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재고량이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상승이 우려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곡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세계의 곡물 수급상황은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주요수출국들의 국내수요 증가로 수출수요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중동지역에서 제2의 걸프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귀금속 및 원유에 몰리던 투자자금이 곡물로 집중되어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선임상승 등으로 곡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세계곡물가격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우리나라 축산업 및 사료산업으로서는 향후 상황변화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양계**

